

장백산천지

제 149 호

2009 년 8 월 21 일

금요일

이집트 기사대금자탑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집트에는 허다한 금자탑이 있다. 고대 이집트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와 6 개 부동한 시기의 왕조시대에 세운것이라고 인정하고있지만 기사고원에 있는 대금자탑은 다른 고대이집트금자탑과 비교해보면 규모, 설계, 공예, 재료, 건축수준 등 방면에서 훨씬 초과했다. 기사대금자탑은 높이가 152 미터 인데 230 개 큰 돌로 구성되었다. 이 큰 돌이 평균 무게는 2.5 톤이다.

이집트금자탑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부분 학자들은 인정

하기를, 이집트문명은 니로하류역에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고대이집트보다 더 일찍이 수천년전에 세워졌다고 인정하고있다. 수련계에서도 인정하기를 사전문명(史前文明)의 산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대금자탑의 래원에 대해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금자탑은 지금의 이집트사람들이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의 이집트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사전(史前)에 한차례 문명에서 만들었고 후에 한차례 대륙 변경에서 그 금자탑이 물속에 빠졌다가 제 2 차 문명이 나타나 신대륙을 만들때 또 물 밑에서 다시 솟아났다. 나중에 지금의 이집트사람이 있게 되었다. 이집트사람들이 이 금자탑의 공능을 발견한후 금자탑을 만들었다. 그속에 관을 놓으면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러한 작은 금자탑을 만들었다.》

각종 시위행사에서 환영을 받은 파룬궁



지난 7 월 27 일부터 8 월 2 일까지 파룬궁수련생들이 에든버러국제예술전시회행진에 참가하여 선녀대의 아름다운 부채춤, 칠색 런꽃이 아롱진 꽃차(윗 사진)에서 표현한 우아하고 상서로운 5 조공법, 금황색옷을 입은 요고대의 우렁한 북소리는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미국 시애틀 해양절에 절찬을 받은 파룬궁



지난 7 월 25 일 밤, 미국 시애틀 60 차 해양축제 “햇빛”대시위행진에서 파룬궁학원으로 구성된 “대법선(大法船)”(윗 그림), 선녀대, 요고대, 사자춤은 70 만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중 독특한 “대법선”이 최고창의상을 받았다.

전산런미술전람회가 대만 마조에서 개막

“전산런국제미술전람회”는



지난 8 월 2 일 대만 국립마조고급중학교에서 막을 올려 관중들에게 진실과 휘황함을 펼쳐보였다. 대만총통 마영구

와 행정원원장 류조현은 축전을 보내며 미술전람회의 성공을 축원했다.

덴마크 파룬궁학원들이 빠스려행으로 진상을 소개

지난 7 월 27 일부터 8 월 2



일까지 덴마크 일본 파룬궁수련생들이 빠스려행으로 수도 코펜하겐외의 8 대 주요도시에서 파룬궁과 중공의 박해진상을 소개했다.

선념은 신심건강을 증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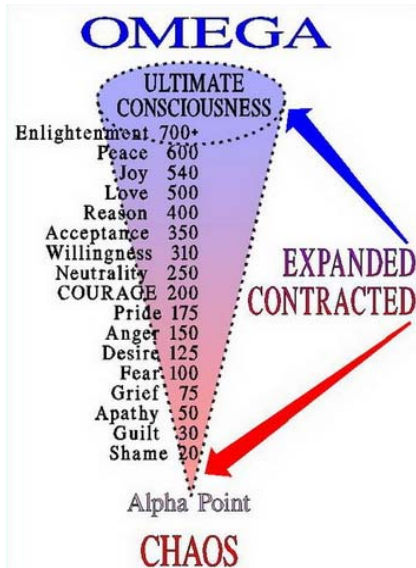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호킹스 박사가 연구한데 의하면 사람의 신체주파수는 정신상태에 따라 높고 낮은 기복이 나타난다고 한다. 성실, 동정, 리해, 관용, 관심, 존경, 사랑 등 선념(善念)은 신체의 중립자의 진동주파수를 제고시켜 신체건강에 리롭지만 랭대, 원망, 두려움, 속태움, 화를 냄, 분노, 탐욕 등 사념(邪念)은 최저의 주파수를 초래하여 신체건강에 해롭다.

물리학자들이 증명한바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고체는 회전하는 립자로 조성되고 이러한 립자는 부동한 진동주파수가 있으며 립자의 진동은 우리의 세계로 하여금 지금의 상태(레컨대 빛과 소리는 실제로 립자진동의 파이다.)를 나타낸다. 우리의 신체는 역시 이러하다.

데이비드-호킹스박사는 인체운동학의 기본원리를 운용하여 20년동안 립상실험을 거쳐 수천개 측험대상에 대한 연구를 끝마친후 인류의 각종 부동한 정신상태는 부동한 인체주파수가 산생되고 이러한 인체주파수는 1--1000 범위에 분포되었음을 발견되었다. 사념은 20--175 이고 선념은 250--600이며 개오는 700--1000이다. 신의 의지와 정신은 절대적인 힘의 주파수로서 더욱 높다. 만약 사념이 생겨 주파수가 200보다 낮다면 신체건강이 약화되지만 선념이 생겨 주

파수가 200보다 높으면 신체건강이 증진된다.

데이비드-호킹스박사의 연구성과와 고대수련계의 인식은 약속이나 한것 처럼 일치하다. 수련계에서는 사람의 신심(心性)을 제고하는 것은 수련계의 근본으로 낮은 층차에서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으며 높은 층차의 “천인합일”의 최종목표에 도달하여 자신의 에너지와 지혜, 우주를 서로 관통하여 불가에서 말하는 “개해, 개오”할수 있는 것이다.



파룬궁학원 류선진을 불법심판한 도문시법원

2009년 7월 초순, 길림성도문시 “610”의 조종하에 도문시법원에서는 도문시파룬궁학원 류선진(劉善真)을 친척과 친우들이 회장에 없는 상황하에 가만히 불법적으로 심판하여 3년도형에 언도했다.

도문시곡수향에 살고있는 류선진은 오른팔과 두 다리가 불구인 농촌부녀이다. 그가 “썩썩런”을 신앙한다는 리유로 2008년 12월 14일에 도문시공안국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모진 매를 맞아 아래다리가 부러졌다. 악경들은 《류선진은 층집에서 뛰어내려 골절되었다.》, 《류선진은 도망치다가 골절되었다.》는 요언을 퍼뜨려 가족에서 상소하겠다고 하니 악경들은 《상소하지 못한다. 상소하면 당신들을 갇아놓고 판결하겠다.》고 위협했다.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것은 공민의 자유이며 권리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류선진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7월 23일 밤, 왕청현동광진파출소 왕보화 등 4명 악경들이 파룬궁학원 리문서(李文書)를 랍치하고 대법책, 진상자료, 컴퓨터, MP3, MP4, 현금 3만여원을 빼앗아갔다.
- 지난 7월 9일, 안도현량강진파출소와 왕청현공안국국보대대는 결탁하여 안도현만보진파룬궁학원 반위(潘偉)를 불법적으로 랍치하고 대법책, 컴퓨터, 프린터, CD 등을 빼앗아갔다.
- 지난 7월 14일 밤, 연길시파룬궁학원 류점화(劉占花), 김춘화(金春花)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15일동안 구류했고 벌금 2천여원을 했다.
- 지난 7월 22일, 화룡시복동향파룬궁학원 류수향(劉秀香)과 고장쇄(高長鎖)는 화룡시복동향파출소 악경 위용, 류봉, 최원일들에게 랍치되어 8월 11일 오후 화룡시법률치안과에서 그들을 9대음마하로교소에 호송하여 각각 1년, 2년 로동교양을 시켰다.
- 지난 8월 12일, 연길시파룬궁학원 김진옥(金珍玉)은 연길시국보대대와 610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컴퓨터, 프린터를 몰수당했다.
- 지난 8월 18일 오전 10시경, 연길시파룬궁학원 조학순(趙學順)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컴퓨터, 프린터 등을 빼앗겼다.